

## 청소년 학교폭력과 기독교의 과제\*

조용훈 (한남대학교)

### I. 서론

### II. 학교폭력에 대한 일반적 이해

1. 학교폭력의 개념과 특징
2.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
3. 정부의 대책과 그에 대한 평가

### III.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교회와 기독교학교의 역할

1.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의 꿈
2. 예언자적 역할에서 본 기독교의 과제
3. 제사장적 역할에서 본 기독교의 과제
4. 교회의 목회적 과제
5. 기독교학교의 과제와 책임

### IV. 결론

\* 이 논문은 2014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 ABSTRACT •

---

## A Study on the Youth School Violence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Ethics

Jo, Yong Hun

Today, the issue of increasing youth school violence, has become an object of the whole social concern. School violence is a complicated problem that is comprised of various elements, such as personal characteristics, experience of family violence, distorted school education system focused only on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and violent culture and harmful environments of the local communities. Therefore, the solutions for school violence should be found in efforts of the whole society including parents, school teachers, the government, local communities as well as churches.

Realizing 'non-violent school and happy class' is a vision for the Christian and churches that are called to be the peace-maker in a violent society. The tasks of the Christianity and the local churches for peace-making in schools are to b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ly, the prophetic ministry of the churches is to expose the false peace in the class and of violent reality of the society, and to protec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victims of school violence. Secondly, the priestly ministry of the churches has to focus on the caring and healing of victims as well as the assailant of school violence by way of reconcili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Thirdly, the ministerial tasks of the churches are the education of the parent's role, and Sunday school education for training the students as peace-makers in the class. Lastly, the tasks of the mission schools are to make a role model of school education by way of holistic education including education of intelligence, moral character, and spirituality.

**Key words:** school violence, culture of violence, christianity, peace-making, reconcile and healing program

---

## I. 서론

학교폭력이 교육계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학교폭력을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불량식품과 더불어 반드시 척결해야 할 ‘악’으로 규정할 정도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정부와 교육당국이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기대했던 만큼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4월 전국 시·도교육청이 국회의원 안민석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만 9949명 이던 학교폭력 가해학생 숫자가 2011년에는 2만 6925명, 2012년에는 3만 8466명으로 최근 3년 만에 92.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다른 조사에서도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008년에 28.6%에서 2011년에는 41.7%로 증가했다.<sup>2)</sup> 안전행정부가 2013년에 수행한 ‘4대악 국민안전체감도 조사’에서는 학교폭력을 성폭력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으며,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일반성인의 경우 68.6%, 중고등학생 56.7%, 그리고 전문가그룹은 70.0%나 되었다.<sup>3)</sup>

학교폭력이라는 악을 척결하겠다고 외치는 정부를 비롯하거나 하듯 학교폭력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형태도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다. 학교폭력의 형태가 사소한 폭력행위에 머물지 않고 목숨을 빼앗을만한 심각하고 잔인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심지어 집단폭행이나 성폭행 후에 범행을 감추기 위해 생매장하는 끔찍한 형태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주목할 사실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나이가 점차 낮아지고, 남녀학생 사이에 차이도 없어지고 있다는 점이다.<sup>4)</sup>

1) “대통령까지 학교폭력 근절 나섰지만”, 「국민일보」, 2014년 4월 14일.

2)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실태 조사”(2012).

3) 안전행정부,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 보도자료”(2013년 8월 2일).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교회의 목회적 활동이나 신학적 연구는 활발해 보이지 않는다. 목회적 차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교계 간행물이 있었지만 그 내용은 문제제기 차원에 머물렀다.<sup>5)</sup>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 신학적 연구도 많지 않았다.<sup>6)</sup> 다행스럽게 최근 기독교상담학계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고<sup>7)</sup>, 기독교교육학계에서도 학교에서의 평화교육을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sup>8)</sup> 하지만 학교폭력 문제의 복잡성을 생각할 때, 이 주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심층적인 연구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이 연구는 학교폭력 문제를 청소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독교윤리학적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폭력의 개념과 특징이 무엇인지 살피고,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분석해보겠다. 그리고 현재까지 정부나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을 비판적으로

- 
- 4) 류영숙,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원교육연구』29(2012), 616.
- 5) 박옥식, “학교폭력의 실태진단과 교회의 역할”, 『활천』527(1997), 69-73; 장훈, “청소년을 위한 패스워드(19): 학교폭력, 왕따”, 『교육교회』300(2002), 168-172.
- 6) 정중훈, “학교폭력 문제와 기독교윤리적인 과제의 모색”, 『신학논단』27(1999), 291-315; 심상우, “기독교윤리의 실천으로서 철학상담: 배움의 공동체로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기독교사회윤리』24(2012), 185-221; 이은형, “기독교 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학원폭력 연구”, 협성대 신학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2013).
- 7) 안석·권선애,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연구: 정성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23/3(2012), 9-57; 강경미, “청소년 학교폭력의 예방과 기독교 상담”, 『복음과상담』16(2011), 64-92; 황규명, “학교폭력에 나타나는 마음의 문제: 성경적 상담의 관점”, 『복음과상담』16(2011), 37-63.
- 8) 유재덕, “학교폭력에 대한 평가와 기독교적 대안”, 『기독교교육논총』34(2013), 225-257; 조은지, “비폭력 대화를 적용한 학교폭력 예방 단위 재구성: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한동대 교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2013).

검토하고 평가하겠다. 그런 비판적 관점에 기초하여 청소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지 탐색하도록 하겠다.

## II. 학교폭력에 대한 일반적 이해

### 1. 학교폭력의 개념과 특징

학교폭력의 개념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년 개정) 제2조 1항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sup>9)</sup>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장소와 관련하여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를 가리킨다. 학교 안에서도 학교폭력은 대개 교실이나 운동장 그리고 기숙사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주변이나 등하교 길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도 학교폭력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대상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을 과거에는 주로 학생 간에 일어난 폭력행위에 한정했지만, 지금은 학생을 대상으로 일어난 모든 폭력행위, 즉 퇴학생이나 자퇴생에 의한 폭력행위까지도 포함한다.

한편, 학교폭력 유형은 신체적 폭력행위만 아니라 언어폭력이나 사이버폭력을 비롯하여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폭력행위까지 광범위하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www.stopbullying.or.kr](http://www.stopbullying.or.kr)

먼저, ‘신체폭력’이란 신체적 고통을 줄 의도로 때리거나, 밀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툭툭 치고, 침을 뱉는 행위들을 가리킨다. 피해 학생을 일정 공간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감금행위나 상대를 속이거나 유혹해서 특정 장소로 데리고 가는 유인행위도 신체폭력에 해당한다.

그리고 ‘언어폭력’이란 욕이나 모욕적인 말(병신, 바보)로서 위협하거나(너 죽어라?) 괴롭히는 행위를 가리킨다. 신체적 약점을 놀린다거나 일부러 싫어하는 별명을 불러 상대방을 비하하고 모욕감을 주는 행위도 언어폭력에 포함된다.

한편, ‘금품갈취’란,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일로서, 실제로 돈을 빌리고 주지 않는 일이다. 그 외에도 돈이나 물건, 학용품을 강제로 빼앗거나, 물품을 일부러 망가뜨리고, 돈을 건어오라고 요구하는 것도 금품갈취에 해당한다.

그리고 ‘강요’는 강제적 심부름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매점에 가서 빵을 사다 바치게 하는 ‘빵 셔틀’이나 자신의 스마트폰 데이터용량을 핫스팟으로 연결해 이용할 수 있게 바치는 ‘와이파이 셔틀’ 같은 행위가 포함된다. 그 외에도 과제나 게임을 대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폭력행위로 볼 수 있다.

‘집단따돌림’(왕따)이란 의도적으로 특정 학생을 지목하여 무시하거나, 말을 걸지 않고, 골탕 먹이고, 비웃고, 함께 밥을 먹지 않고, 좌석 배치 시 옆자리에 앉는 것을 기피하여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외로움, 우울, 분노, 모욕감 같은 감정에 빠지도록 만드는 행위다.

‘성폭력’이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를 강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강제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나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행위도 성폭력에 포함된다.

최근에는 ‘사이버폭력’이 증가하는 추세다. 여기에는 특정학생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채팅이나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는 물론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공포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욕이나 위협을 가하고,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시키는 행위가 포함된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에 대한 최근의 한 연구조사를 보게 되면,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폭력은 신체폭력이 가장 많고, 뒤이어 언어폭력, 금품갈취, 그리고 집단따돌림 순으로 많았다고 한다.<sup>10)</sup>

학교폭력 문제가 비단 오늘날의 문제는 아니다. 학교폭력이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최근의 학교폭력은 과거와 여러 면에서 다른 것을 알 수 있다.<sup>11)</sup> 첫째, 폭력행위의 발생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폭력행위가 주로 중고등학교 때에 발생했다면, 지금은 점차 중학교를 거쳐 초등학교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한 통계를 보면, 피해학생 중 53.6%가 초등학교 때 최초로 학교폭력을 경험했고, 가해학생 중 58.0% 역시 초등학교 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둘째, 중학생들 사이의 폭력 발생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국민신문고’에 신고 된 학교폭력 민원을 보게 되면, 2010년-2011년 사이에 중학생의 학교폭력 증가율이 초등학교의 7배, 고등학교의 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폭력에서 가해와 피해의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피해자로만 머물지 않고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다. 넷째, 물리적 폭력에 비해 언어적·정서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

10) 정하은·전종설,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의 위협요인”, 『청소년복지연구』14/1(2012), 196.

11) 이하의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여 요약함. 조종태,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방안: 법무부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저스티스』제134-3호(2013년 2월 특집호II), 145-147.

체폭력이 줄어들어 대신에 강제적 심부름이나 사이버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의 집단화 현상이다. 다수의 가해학생에 의한 집단적 폭력행위가 늘고, 일진 같은 조직적 폭력집단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특징이 여럿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여학생 사이의 폭력행위가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여학생들 사이의 폭력행위에서는 신체적 폭력보다 언어적 폭력이 더 많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학교를 유형별로 보면, 인문계학교나 특수목적학교 보다는 실업계학교에서 더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계학교 내에서는 성적 상위권 학생 보다는 중위권 혹은 하위권 학생들에게서 폭력경험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2.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

학교폭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생겨나는 복합적 문제다.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요인 외에도 가정환경, 학교환경, 그리고 사회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개인 심리적 요인이다. 발달시기상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 시기로서 학생들은 심리적 갈등과 혼란 속에 있게 된다. 진로와 미래가 불안하고,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분노노질 능력이 약한 학생들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거나 쉽게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기질적으로 충동적이거나 공격성향이 높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쉽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학교폭력 가해자들 가운데에는 생리적으로 전두엽 실행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공격적 언행을 통제할 능력을 결여하고 있는 학생도 있다고 한다.<sup>12)</sup>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일수록 학교폭력의



희생자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3)</sup> 자아존중감은 교우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자 대부분은 친구가 적고, 교우관계의 질이 낮은 반면에 친구가 많을수록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한다.<sup>14)</sup>

둘째, 가정적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가정의 해체나 부적절한 부모의 역할(역기능적인 부모)이 학교폭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가정에서 부모 간 혹은 부모에 의한 지속적인 폭언이나 폭행을 경험한 학생일수록 학교에서 폭력학생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sup>15)</sup>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자녀들을 방치한 가정이 느는 것도 주목해 볼 일이다.

셋째, 학교환경 요인이다. 오늘날 학교는 ‘입시교육의 장’으로 변했고, 교실은 ‘입시 전장터’와 다름없다. 그런 교실에서 학우들 간의 관계는 경쟁관계로 변했다. 청소년의 학업성취 수준에 비해 학우들과 관계를 맺고 더불어 생활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학우들 간에 발생하는 작은 시비나 사소한 갈등조차 쉽게 폭력으로 바뀌고 있다. 심지어 교사 자신이 폭력적 언어나 행동으로 폭력문화를 조장하는 경우도 있다. 학업수준이 낮거나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교사의 잘못된 언행은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와 모욕감을 주는 언

12) 문용린 외,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서울: 학지사, 2006), 53.

13) ‘자아존중감’이란 긍정적인 자아개념으로서 자신을 능력있고 가치있게 판단하는 태도다. 자아존중감이 낮을 경우 비행, 자살, 우울 등 심리사회적인 문제의 원인이 된다. 동시에 또래집단의 압력에 취약하게 만들어 흡연, 음주, 약물남용, 집단 따돌림 가세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참고: 이석형, “청소년 비행요인에 대한 청소년의 성별과 학력 차이 연구”, 『신학과목회』32(2009), 305.

14) 정하은·전종설,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의 위험요인”, 199.

15) 정정애,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지원학회지』7(2012), 301-318; 이승출,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29(2012), 116-135.

어폭력에 해당한다. 그리고 통제되지 못한 교사의 감정적 체벌은 훈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2014년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에는 교사가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줄리다는 학생 눈에 살충제를 뿌린 일이 있고, 과일을 깎는 칼로 체벌하다 학생에게 상처를 입힌 행위도 있다. 교사의 체벌 때문에 학생이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심지어 의식불명이 되어 목숨을 잃는 사건도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사회환경 요소다. 학교주변에 성행하고 있는 오락실, 유흥업소, 노래방, 게임방과 같은 퇴폐유해환경은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소비욕구를 자극하고, 학생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위험이 있다.<sup>16)</sup>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폭력적 인터넷 게임,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영웅적으로 그려지는 폭력행동들은 학생들의 폭력행동에 영향을 미친다.<sup>17)</sup> 그리고 우리사회의 일상화된 폭력문화나 생명경시 풍조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들도 청소년 학교폭력의 간접적 원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 3. 정부의 대책과 그에 대한 평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에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7대 실천정책을 제시했다. 첫째,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의 강화다. 학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해학생의 출석을 금지시킬 권한을 가지며, 교사들은 교사자격증 취득 시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둘째, 신고-조사체계의 개선 및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의 강화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각급학교에서 매년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16) 조중태,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방안: 법무부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145.

17) 김재엽 외, “인터넷 게임의 폭력성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폭력생각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7/1(2010), 249-278; 김현실, “폭력매체가 청소년 폭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행동연구』3(1998), 53-70.

토록 한다. 셋째, 또래활동 등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사이버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넷째, 학부모 교육의 확대 및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다. 다섯째, 교육전반에 걸친 인성교육의 실천으로서 나눔이나 존중, 예절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하며, 중학교에서는 체육활동을 강화한다. 여섯째, 가정과 사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밥상머리교육을 회복한다. 마지막,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을 제거한다.

한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4)은 학교 안에 학교폭력 문제를 전담할 기구와 예방프로그램의 실시, 그리고 전문상담교사 배치(14조),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15조), 그리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인지하게 된 경우 학교나 관계기관에 신고(20조)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상에서 간략히 살펴 본 것처럼,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정부나 교육당국의 정책방향은 예방적이라기보다는 사후적이며,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격리, 그리고 학교당국이나 교사에 대한 더 강력한 책임추궁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와 처벌 위주의 방식이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쉽고 편한 방법으로 보인다. 학교에 경찰이 상주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엄중 처벌하고,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학교나 지도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면 가시적 효과가 금방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와 징벌 위주의 정책으로 과연 학교폭력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학교폭력 문제란 이미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더 이상 교실 안에서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당국은 물론 가정과 사회,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다 함께 노력해야 해결 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다.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 대부분을 보면,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를 예로 들자면, 전국 1만 1360개 초중고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 숫자가 1581명(2013년 3월 기준)에 불과하다. 전체 학교 가운데 고작 13%의 학교만 전문상담교사를 두고 있는 셈이다.<sup>18)</sup>

물론, 학교폭력 문제가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문재인 것이 사실이지만,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핵심주체는 당연히 학교당국과 교사들이다. 학교당국과 교사들이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학교 밖에서 가정과 사회가 노력한다 해도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과거의 학교폭력 처리 과정들을 살펴보면 학교당국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일쑤였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에는 숨기거나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학교의 이미지나 해당 교사의 불이익 문제만 신경 썼기 때문이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교사들의 무감각과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다. ‘4대악 국민체감도 조사’(2013년) 분석 자료를 보게 되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가정과 학교의 관심 및 지도 부족’이라고 답한 사람은 일반국민(52.3%), 중고등학생(68.0%), 전문가 그룹(48.6%) 순이었으며,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이라고 답한 사람은 일반국민(49.3%), 중고등학생(74.9%), 전문가 그룹(37.1%) 순이었다.<sup>19)</sup>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당국과 교사들의 인식수준이 낮고, 대응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학교 내 분위기가 이렇다보니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피해학생들은 학교당국이나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를 거꾸로 생각해보

18) “대통령까지 학교폭력 근절 나섰지만”, 『국민일보』 2014년 4월 14일.

19) 안전행정부,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 보도자료”(2013년 8월 2일).

면,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당국과 교사가 관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상당한 정도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 III.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교회와 기독교학교의 역할

#### 1.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의 꿈

인간에 대한 폭력은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심각한 악이다. 폭력은 피해자만 아니라 가해자의 존엄성과 인간성도 파괴하는 야만적 행위다. 피해자는 폭력의 희생물이 됨으로써 인간됨을 거부당하고, 가해자는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스스로의 인간됨을 부정한다. 특히,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상처와 고통을 주며, 두려움 때문에 자살까지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심각히 다루어야 할 악이다.

성서는 하나님을 모든 형태의 폭력을 죄악시하며 엄하게 벌하시는 분으로 표현한다. 최초의 폭력행위자인 가인에게는 발을 갈아도 수확이 없으며, 땅 위에서 쉬지 못한 채 평생을 떠돌아다녀야 하는 형벌을 내렸다. (창 4:11)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극악한 형태의 살해행위만 아니라 온갖 유형의 신체침해와 인격침해를 포괄적으로 금지한다. 예수께서도 이 계명을 해석하시면서 겉으로 드러난 폭력행위만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고, 욕하고, 성을 내는 것까지 살해행위에 포함하셨다. (마 5:21-22)

폭력이 일상화된 세계에서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나아가 폭력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내용이었으며 동시에 그의 제자 된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기도 하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폭력을 극복하고 평화를 창조하도록 부름 받은 소명자들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마 5:9)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고후 5:18)

그런데 학교와 교실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추구하고 실현해야 할 평화란 어떤 것인가? 사전적인 의미에서 볼 때, 구약성서가 말하는 평화(샬롬)란 신체의 안전(시 38:3), 육체의 건강(창 43:27), 조화로운 인간관계(렘 38:22), 그리고 전쟁이 없는 상태(수 9:15) 등을 가리킨다.<sup>20)</sup> 성서에서 평화에 대한 비전은 종말론적 대망에 속했는데, 예언자들에게 있어 평화란 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며,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가 성취 된 상태를 가리킨다.(사 11:6-9)

구약학자 베스터만(C. Westermann)의 견해에 따르면, 평화란 단순히 전쟁이 없는(엔샬롬)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온전함, 풍부함, 완전함, 그리고 행복을 나타내는 적극적 개념이다.<sup>21)</sup> 신약학자 쇼트로프(L. Schottroff)의 견해에 따르면, 예수님에게 있어 평화란 원수사랑, 즉 비폭력과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sup>22)</sup> 예수님은 로마제국의 강압적 지배와 권력자들의 폭압적 통치, 그리고 ‘눈

20) 민영진, 『평화 통일 회년』(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14-15.

21) 페리 요어·위러드 스와트리, 신상길·소기천 역, 『평화의 의미』(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32-33, 47-49.

22) 같은 책, 208-213.

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원리가 일상화 된 폭력의 시대에 사셨다. 하지만 그분은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열심당(젤룻당)이나 폭력현장에 눈 감은 채 사막에서 순수 종교생활만 추구하던 에세네파와 달리 비폭력적 방법을 통해 폭력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하셨다.

2012년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구호는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다. 폭력없는 행복한 상태란 성서가 추구하는 '샬롬'의 상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샬롬 개념의 성서적 의미에 비쳐 볼 때, '샬롬의 학교'란 단순히 학교폭력이 줄어들거나 학교폭력이 사라진 상태를 넘어서 구성원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행복한 상태를 가리킨다. 학교가 입시 '지옥'이나 입시 '전장터'에서 벗어나 본래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며, 교우들과 원만한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교사와 학생들은 서로 신뢰하고 존경함으로 전인격적인 가르침과 배움이 가능해 지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궁극적으로 이런 샬롬의 학교를 만드는 일에 기여하도록 부름 받은 소명자들임을 기억해야 한다.

## 2. 예언자적 역할에서 본 기독교의 과제

성서의 예언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신앙과 사회정의라는 가치에 기초하여 불의한 사회구조나 사회제도를 비판하면서, 교아나 과부, 이방 나그네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대변했다. 그들은 폭압적 통치로 만들어지는 거짓된 평화와 질서를 폭로하고 대신 참 평화와 온전한 치유를 외쳤다.(렘 6:14) 이런 예언자적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기독교가 샬롬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첫째,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문제인지, 그리고 폭력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깨닫도록 선포하고 교육해야 한다. 폭력의 문화에

길들여지면 사람들은 폭력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악인가를 잘 깨닫지 못하게 된다.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학생들 가운데에는 끔찍한 폭력을 저지르고도 그에 대한 죄의식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재미로 했다는지 장난삼아 해봤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가해자들의 이런 생각과는 달리 폭력의 피해자들은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기 까지 한다.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자 중에서 31.4%의 학생들이 학교폭력 때문에 자살을 생각해보았다고 한다.<sup>23)</sup>

한편, 학교당국이나 교사들 가운데에도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지 못해서 학교폭력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 간의 폭력은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며, 애들은 으레 맞으면서 자란다고까지 생각한다. 심지어 교사들 가운데에는 학교폭력의 유발자가 되는 경우까지 있다. 폭력적 언어와 감정적 체벌로 학생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상처와 고통을 주는 폭력 교사들이 존재한다. 잘못된 체벌은 훈육이란 이름으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학생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폭력행위가 될 수 있다.

둘째, 기독교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폭력의 현장에서 ‘방관자’에 머물지 않고 ‘해결자’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한 연구조사(2012)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31.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 가운데 56.3%는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모른 척 했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 ‘같이 피해를 입을까봐’(29.9%), ‘어떻게 할지 몰라서’(25.3%)라고 답했다.<sup>24)</sup>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처럼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방어 차원에서 무관심하거나 방관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왕따가 되지 않으려는 심리, 내 문제만 아니면 된다는

23) 류영숙,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621.

24) 같은 글, 619-620.



생각, 보복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학생들의 이런 방관자적 태도는 학교폭력 문제를 지속시킬 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적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 수준을 낮게 만든다.<sup>25)</sup>

기독교 학생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학교폭력의 방관자로 머물게 하지 않으려면 그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교실을 만드는 일에 동기를 부여하고, 갈등을 해결할 능력을 훈련시켜야 한다. ‘네 아우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하나님의 물음에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창 4:9)라고 핑계 댔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모두 ‘아우를 지키는’ 생명의 파수꾼으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기독교 학생들이 생명의 파수꾼이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그들로 하여금 폭력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인식하게 하고, 폭력 피해자가 받는 고통에 공감할 수 있게 하며, 폭력의 현장에서 ‘그만’(스톱)이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학교폭력을 조장하는 우리사회의 폭력적 사회문화를 고발하고 개혁하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 학교폭력은 파괴된 가정이나 입시교육으로 왜곡된 학교환경 외에도 폭력이 일상화 된 사회문화 환경에 의해 조장되고 강화된다.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적자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의 문화는 점점 더 무자비하고 폭력적으로 변해 간다. 극단적 경쟁 상황에서 생겨나는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마다 작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폭력을 사용한다. 주차시비나 아파트 층간소음 같은 갈등조차 끔찍한 살인으로 비화하고, 심지어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묻지마 살인’ 같은 폭력행위까지 생겨나고 있다. 어쩌면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은 이

25) 이지연·조아미, “학교폭력에 대한 청소년의 방관적 태도가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14(2012), 337-357.

같은 우리사회 폭력문화의 희생자일 수 있다.

이런 폭력적이고 반생명적인 사회문화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평화의 일꾼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작고 사소한 갈등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일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일이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체적이거나 언어적인 폭력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일은 교회가 사회를 향해 폭력근절을 외치기에 앞서 모범을 보여야 할 중요한 과제다.

### 3. 제사장적 역할에서 본 기독교의 과제

성서의 제사장들은 거룩함이라는 종교적 가치를 중시하면서 제사의식이나 종교교육, 그리고 영적 돌봄과 같은 사역을 통해 백성들의 종교성과 공동체성을 함양시켰다. 종교인의 이러한 역할을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이슈에 적용할 때 기독교의 역할은 무엇일까?

첫째,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돌봄과 치유 사역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등교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극단적인 고통과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의 절반 정도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한다.<sup>26)</sup> 그런데 피해학생이 학교나 가정으로부터 아무런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으며, 자칫하면 그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바뀔 위험성도 있다.<sup>27)</sup>

26)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3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27) 김명자, “중학생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간호학회』10/2(2001), 241-253.

기독교가 학교폭력 희생자들에게 돌봄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피해학생이 사회적 약자 계층에 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대개 지적 장애나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남다른 외모를 지니며, 학업성적은 부진하고, 다문화가정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의 자녀들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적 유능감이 낮아서 피해를 당하고도 적극 대응하지 못한다는 공통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온전한 치유란, 가해학생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용서와 진실 된 화해가 있을 때라야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정부정책은 가해학생을 사법처리하고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시키는 처벌위주 정책이다. ‘응보적 정의’에 기초한 이 같은 처벌위주의 정책이 갖는 한계는 명확하다. 가해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잘못과 책임을 자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피해학생의 상처와 고통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지도 못한다.

응보적 정의에 기초한 처벌위주의 정책은 결코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문제 인식에서 메노나이트 신학의 배경을 지닌 하워드 제어(H. Zehr)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개념을 제안한다.<sup>28)</sup> ‘회복적 정의’란 범죄행위에 관계된 사람들,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손해와 욕구, 의무와 책임 등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가능한 많이 참여시켜, 책임의 수용과 화해를 통해 범죄행위로 인해 생겨난 상처와 고통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데 관심하는 개념이다.

‘회복적 정의’ 개념을 학교폭력 문제 해결 과정에 적용할 때 대체로 다

28) 하워드 제어, 손진 역,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범죄와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춘천: 한국아나뱃티스트출판사, 2011). 회복적 정의를 학교현장에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으로는 다음이 있다. 로레인 수투츠만 암스투츠·쥬디 H. 몰렛, 이재영·정용진 역, 『학교현장을 위한 회복적 학생생활지도』(춘천: 한국아나뱃티스트출판사, 2011).

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9)</sup>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피해사실을 바로 인지하고 모두가 공감하게 하기.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의 필요를 듣고 응답하기. 공동으로 문제해결을 노력하면서 각 개인의 책임감 키우기. 가해자를 공동체 안으로 다시 수용해주기. 서로 돌보고 배려하는 공동체 만들기.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기.

둘째, 학생들로 하여금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초한 건강한 자아상을 갖도록 돕는 일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학생들의 자아상은 대학입시주의 학교교육과 외모중심의 사회문화에 의해 심각할 정도로 왜곡되어 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에릭슨(E. H. Erikson)의 주장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 과제는 정체성 형성에 있다.<sup>30)</sup> 청소년기에 형성된 자아정체성이 이후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나 학교폭력과 자아존중감 사이에 상관성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학생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도록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역임이 틀림없다.

기독교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관심 아래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선포한다. 모든 인간은 사회적 위치나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마 3:17)는 음성은 오늘날 모든 청소년들에게도 들려져야 한다. 그 같은 하나님의 긍정적 사랑과 무조건적 수용의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은 비로소 자신을

29) 박숙영,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시선, 회복적 생활교육”,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2012년 기독교학교교육세미나 자료집』(2012), 42-43.

30) 에릭 에릭슨, 윤진, 김경인 역, 『아동기와 사회』(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0), 285-320.

긍정할 수 있게 되고, 적극적 교우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며, 나아가 이웃과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적 존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4. 교회의 목회적 과제

학교폭력이 사회적 핫 이슈가 되고 정치적 현안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회의 목회적 관심은 아주 적은 편이다. 박상진에 의해 수행된 연구조사에 따르면, 교회 안에서도 폭력행위가 발생하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인 경우가 상당수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설교를 들어 본 학생'은 50% 미만이었으며, '성경공부를 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28%에 불과했다.<sup>31)</sup> 이런 비판적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그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 학생들의 성품훈련과 부모교육, 그리고 신앙성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학교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비전의 제시, 폭력 없는 교회의 모범 보이기, 그리고 가정의 교육적 역할 회복(신:6:4-9)도 강조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으로서 교회 안에 '기독학부모공동체'를 형성하자고 제안했다. 기독학부모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인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참여하고,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sup>32)</sup>

교회의 목회적 과제 가운데서도 특별히 교인들의 학부모교육에 관심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파괴된 가정이나 왜곡된 부모라는 배경을 공통적으로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가정이 파괴되면서 아이들은 가정에서 정서

31) 박상진,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교회의 과제와 사명: 교회학교 학생들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2012년 기독교학교교육세미나 자료집」(2012), 23.

32) 같은 글, 29, 30-34.

적인 안정감이나 자아존중감, 그리고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존재했던 ‘밥상머리교육’도 사라지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는데 필요한 가정의 정서적 기능과 교육적 역할 회복을 위해 교회가 학부모교육을 통해 발달시기에 맞는 적절한 교육 내용이나 기술들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다.

### 5. 기독교학교의 과제와 책임

우리나라 기독교학교들은 근대적 중등교육의 효시로서 중등교육의 발전은 물론 사회문화 발전과 교회성장에도 크게 기여했다. 기독교학교는 기독교 가치관을 지닌 지도자를 양성하고, 민주적 시민의식과 민족의식을 지닌 건강한 시민을 양성했다. 하지만 오늘날의 기독교학교들은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체성 위기에 놓여있다. 학교가 입시교육의 장으로 변하고, 정부에 의해 고교평준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기독교학교에서 종교교과목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립학교로서의 재정적 한계로 말미암아 교육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그 결과 과거 기독교학교들이 지녔던 교육적·도덕적 수월성이 사라지면서 또 하나의 일반학교들로 변해 가고 있다. 기독교학교들도 일반학교들과 마찬가지로 명문대학 진학자 숫자를 늘리는데 관심하느라 창학 이념인 인성교육이나 공동체교육에 제대로 관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리스도인 사이에서조차 기독교학교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입시교육의 폐해가 커지는 오늘의 교육현실은 기독교학교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교육당국은 물론 사회일반도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전인교육(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당국은 학생부의 인성 항목 과목을 대학입시에 반영

토록 요구하고, 대학당국도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해 인성요소를 점수화하고 있다. 전인교육은 기독교학교가 본래부터 추구하고 시행했던 교육목표였으며 상당한 노하우를 지닌 교과과정이어서 기독교학교가 일반학교와 차별화 될 수 있는 장점이다. 물론 기독교학교가 입시교육으로 왜곡된 오늘날의 학교교육에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으려면, 먼저 기독교학교 자체의 교육목적,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 구성원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한 진지한 자기반성과 성찰이 있어야만 한다.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인교육 혹은 인성교육이 무엇인지 정확히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기독교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인성교육이란 학생들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온전히 성장하도록 돕는 일을 가리킨다. 그것은 학생들의 지식만 아니라 감성이나 덕성, 그리고 영성까지 계발하는 교육일 것이다. 우리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눅 2:52)는 예수님의 성장 모습을 통해 전인적 성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전인교육에 포함되는 '감성교육'이란 마음과 정서를 순화시키는 교육을 가리킨다. 예술이나 문학, 체육 활동을 통해 정서를 순화하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정서교육이라 하겠다. 감성교육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받게 되는 고통이나 두려움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도 포함한다.

한편, '덕성교육'은 좋은 성품을 기르는 교육으로서 예절이나 정직성, 책임성만 아니라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나 돌봄의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다. 예절교육을 다시 강조해야 하는 이유는 학교폭력의 유형 가운데 하나가 언어폭력이고, 신체폭행도 거친 언어사용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핵가족과 경쟁적 학교환경에서 형성된 자기중심주의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육도

중요하다.

기독교학교에서 전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이 종교과목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그 교육적 가치를 인정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학교당국은 종교과목 외에도 국어나 도덕, 사회 과목을 내실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외 활동(체육, 문화, 예술 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교과외 교육활동으로 각종 형태의 집단활동 프로그램이 중요한데, 이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부모나 교사보다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집단활동 프로그램은 대인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타인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만들고, 자신의 감정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건설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건강한 교우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 일반적으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sup>33)</sup>, 원예활동<sup>34)</sup>, 그리고 문화활동(문화예술동아리)<sup>35)</sup>은 효과적인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전인교육이란 하나의 내용이나 테크닉 이라기보다는 교사의 인격과 관련된 문제다. 이는 전인교육이 정보를 전달하거나 지식을 전수하는 것 이상의 일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교육학자 파커 팔머(P. Palmer)의 표현대로 “훌륭한 가르침은 하나의 테크닉으로 격하되지 않는다. 훌륭한 가르침은 교사의 정체성과 성실성에서 나온다.”<sup>36)</sup> 따라서 기독교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는 학원 강사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자가 아니라 친구나 스승, 나아가 멘토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 교사에게 있어서 교사라는 직무는 하나

33) 권민혁 외, “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방과후 학교스포츠프로그램 활성화 정책 방안”, 『한국체육학회지』52/5(2013), 207-221.

34) 정혜정, “심성 개발을 위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상담과지도』44(2009), 295-311.

35) 송윤희, “학교폭력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13(2013), 565-586.

36) 파커 팔머, 이종인·이은정 역, 『가르칠 수 있는 용기』(서울: 한문화, 2005), 27.



의 ‘직업’(career)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calling)이 된다. 그는 교직을 통해서 돈을 벌거나 경력을 쌓는 데 머물지 않고 평화로운 학교 건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하나님의 공동창조자가 된다.

#### IV. 결론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의 학교폭력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다. 비록 학교폭력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학교의 문제이고 학교당국이나 교사가 우선적으로 책임질 문제이지만, 넓게 보면 학교폭력은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은 붕괴된 가정과 입시교육으로 왜곡된 학교교육, 그리고 우리사회의 일상화된 폭력문화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처벌위주의 대책만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책임을 학생들이나 교사에게만 돌리는 무책임한 처사다.

물론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학교당국과 교사들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노력에서 찾아야 한다. 먼저, 가정의 교육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을 회복하고, 부모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입시위주로 왜곡된 학교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교육의 본질인 전인교육을 통해 지식만 아니라 감성과 덕성을 균형있게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사회에 일상화된 폭력문화를 극복하려는 전 사회적 노력이 요청된다.

‘폭력 없는 교실,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일은 평화의 사도로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중요한 소명이다. ‘살림의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그

리스도인과 교회는 예언자적 직무와 제사장적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성서의 예언자들처럼 폭력문화를 고발하고 희생자 편에서 그들의 침묵을 대변해야 한다. 성서의 제사장들처럼 희생자들만 아니라 가해자들까지 돌보고 섬김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화해와 치유가 가능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목회적 차원에서 교인들을 위한 학부모교육과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평화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기독교 정신에 기초하여 세워지고 운영되는 기독교학교들이 차별화된 인성교육을 통해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어 내는 일은 기독교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길이며, 입시교육으로 방향을 잃은 학교교육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문용린 외,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서울: 학지사, 2006).
- 민영진, 『평화 통일 회년』(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 로레인 S. 암스투스·주디 H. 플렛, 이재영·정용진 역, 『학교현장을 위한 회복적 학생 생활지도』(춘천: 한국아나뱃티스트출판사, 2011).
- 에릭 에릭슨, 윤진·김경인 역, 『아동기와 사회』(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0).
- 파커 팔머, 이종인·이은정 역, 『가르칠 수 있는 용기』(서울: 한문화, 2005).
- 페리 요어·위러드 스와트리, 신상길·소기천 역, 『평화의 의미』(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 하워드 제어, 손진 역,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범죄와 정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춘천: 한국아나뱃티스트출판사, 2011).
- 강경미, “청소년 학교폭력의 예방과 기독교 상담”, 『복음과상담』16(2011), 64-92.
- 권민혁 외, “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방과후 학교스포츠프로그램 활성화 정책 방안”, 『한국체육학회지』52/5(2013), 207-221.
- 김명자, “중학생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간호학회』10/2(2001), 241-253.
- 김재엽 외, “인터넷 게임의 폭력성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폭력생각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7/1(2010), 249-278.
- 김현실, “폭력매체가 청소년 폭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행동연구』3(1998), 53-70.
- 류영숙,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29(2012), 615-636.
- 박상진,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한국교회의 과제와 사명: 교회학교 학생들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2012년 기독교학교교육세미나 자료집』(2012), 9-34.
- 박숙영,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시선, 회복적 생활교육”,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2012년 기독교학교교육세미나 자료집』(2012), 41-47.
- 박옥식, “학교폭력의 실태진단과 교회의 역할”, 『활천』527(1997), 69-73.

- 송윤희, “학교폭력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음악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13(2013), 565-586.
- 심상우, “기독교윤리의 실천으로서 철학상담: 배움의 공동체로 학교폭력을 해결하기”, 『기독교사회윤리』24(2012), 185-221.
- 안석·권선애,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 연구: 정신역동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23/3(2012), 9-57.
- 유재덕, “학교폭력에 대한 평가와 기독교적 대안”, 『기독교교육논총』34(2013), 225-257.
- 이석형, “청소년 비행요인에 대한 청소년의 성별과 학력 차이 연구”, 『신학교목회』32(2009), 301-323.
- 이승출,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29(2012), 116-135.
- 이은형, “기독교 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학원폭력 연구”, 협성대 신학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2013).
- 이지연·조아미, “학교폭력에 대한 청소년의 방관적 태도가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14(2012), 337-357.
- 장훈, “청소년을 위한 패스워드(19): 학교폭력, 왕따”, 『교육교회』300(2002), 168-172.
- 정종훈, “학교폭력 문제와 기독교윤리적인 과제의 모색”, 『신학논단』27(1999), 291-315.
- 정정애,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지원학회지』7(2012), 301-318.
- 정하은·전종설,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의 위험요인”, 『청소년복지연구』14/1(2012), 195-212.
- 정혜정, “심성 개발을 위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상담과지도』44(2009), 295-311.
- 조은지, “비폭력 대화를 적용한 학교폭력 예방 단원 재구성: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한동대 교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2013).
- 조종태,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방안: 법무부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저스티스』제 134-3호(2013년 2월 특집호II), 141-160.
- 황규명, “학교폭력에 나타나는 마음의 문제: 성경적 상담의 관점”, 『복음과상담』16(2011), 37-63.

논문투고일: 2014. 10. 01.

심사개시일: 2014. 11. 14.

게재확정일: 2014. 12. 06.

---

 • 국 문 초 록 •
 

---

오늘날 청소년의 학교폭력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다. 비록 학교 폭력이 학교 안에서 학생들 사이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학교의 문제이고 학교당국이나 교사가 우선적으로 책임질 문제이긴 하지만, 넓게 보면 학교폭력은 우리사회 전체의 문제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은 붕괴된 가정에서 폭력경험, 입시교육으로 왜곡된 학교교육, 그리고 우리사회의 일상화된 폭력문화와 유해한 지역사회환경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도 사회구성원 전체의 노력에서 찾아야 한다. 먼저, 가정의 교육적 기능과 정서적 기능이 회복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입시위주로 왜곡된 학교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교육의 본질인 전인교육을 통해 지식만 아니라 감성과 덕성, 그리고 영성까지 계발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우리사회에 일상화된 폭력문화를 극복하는데 힘써야 한다.

‘폭력없는 학교,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일은 평화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거룩한 소명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예언자들처럼 폭력문화를 고발하고 희생자 편에서 그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 제사장들처럼 희생자들만 아니라 가해자들이 함께하는 화해와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온전한 돌봄과 치유에 힘써야 한다. 한편, 교회는 목회적 차원에서 올바른 부모역할을 위한 부모교육과 교우관계에서 갈등해소를 위한 주일학교 평화교육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학교들이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본래적 교육이념인 전인교육(지성, 덕성, 영성의 조화)의 활성화를 통해 오늘날 왜곡된 학교교육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주제어:** 학교폭력, 폭력문화, 기독교, 평화만들기, 화해와 치유 프로그램

---